새해, 해돋이 하나님돋이 천국돋이

(요한복음 12:36~50)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새해, 해돋이 하나님돋이 천국돋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새해, 해돋이 하나님돋이 천국돋이”
새해 첫 번째 오늘의 번제 말씀의 내용은 빛과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임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강릉은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해변가에 나가보면 관광객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하여 팔레스타인 지방 전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250만 명이나 모였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릉의 경포대나 정동진 등을 비롯한 해돋이 명소들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해돋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돋이 광경을 보면 그 이유가 느껴집니다. 저는 강릉에 살지만 1월 1일에 해돋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현지에 사는 사람으로서 타지의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셈입니다. 다만 아침 방송이 없는 날 이른 아침에 해변가로 나가서 산책을 하다보면 해돋이를 보게 됩니다. 해돋이 광경은 매번 볼 때마다 참 경이롭습니다. 해가 수면 위로 둥실 떠오를 때는 유난히 빨갛게 빛납니다.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라 살아서 어른거리는 빨강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돋이를 보러온 사람들은 수면 아래에 있다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빕니다. 아름다운 태양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만도 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사항은 수면 아래에 감추어진 태양과도 일치됩니다. 그 태양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빨갛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의 희망사항도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와서 새벽을 기다리고,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다가 빨갛게 빛나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고자 합니다.

물론 해돋이는 미신입니다. 백날 소원을 빌어도 실제로 희망사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새해에 할 일은 해돋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돋이와 천국돋이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하나님돋이와 천국돋이를 마주할 때에 갖게 되는 마음은 해돋이와는 반대입니다. 3차원 세상 안에서 한 해 동안 살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나의 한 해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삶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가 떠오르면 사방으로 빛을 발하여 만물이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돋이와 천국돋이가 이루어질 때는 깜깜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희망들이 보이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해돋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솟아오르는 하나님돋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솟아오르는 천국돋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돋이, 천국돋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빛과 천국의 빛이 3차원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희망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할 일은 하나님돋이이고 천국돋이입니다.
이전에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육체의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의 눈입니다. 세 번째 눈은 좋음을 느끼는 마음의 눈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해돋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돋이이고 천국돋이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해돋이로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눈은 동해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지라도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바라보고 있던 돈 문제가 2022년 1월 1일에도 여전히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의식과 마음에서 돈이 태양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새해 인사를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아도 듣는 사람이 준비돼있지 않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듣는 사람이 희망하는 것을 빌어주는 것이 새해인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해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날마다 해돋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돋이이기에 하나님돋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에 천국돋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돋이와 천국돋이를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돋이를 맞이하여 하루를 살면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추게 됩니다. 태양빛이 열에너지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빛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돋이만 맞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빛 에너지로 내 삶의 모든 일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돋이를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취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 에너지가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처럼 삶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해돋이에는 명소가 있습니다. 강릉 근처로 경포대가 있고 정동진이나 송정해변이나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도 있고 강문해변도 있습니다. 포항이나 울산에도 해돋이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돋이, 천국돋이의 명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몸이 처한 3차원 삶의 현장이 모두 하나님돋이, 천국돋이의 명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돋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빨간 해가 아름답게 어른거리며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여러분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태양이신 하나님돋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에 하나님이 태양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명소가 되고 만나는 사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빛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동해에 몰려든 사람들의 정성이 반의반만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해돋이의 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과 44절과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빛에 비유하십니다.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신 내막에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의 현장이 의식과 마음의 진정한 태양이신 하나님돋이가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돋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돋이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해 아침에 동해에서 빨갛게 떠오르는 해를 연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 해 대신에 하나님과 천국을 대입해봅니다. 의식의 눈으로 하나님이 빨간 해처럼 떠오르시는 것을 의식합니다. 또 마음의 눈으로 해처럼 떠오르시는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의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는 상태가 될 때 내가 손대는 일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전부 하나님돋이의 명소가 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취면서 그 에너지로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는 의식과 마음에서 그동안 빛의 역할을 했던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을 먼저 의식하였습니다. 직장인의 의식에서는 사장님이 태양입니다. 가정에 있는 주부가 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주부에게는 돈 문제가 태양입니다. 부모가 자녀문제로 인해 골치 아파합니다. 이 부모에게는 자녀문제가 태양입니다.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태양이고 줄리엣에게 로미오가 태양인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있음을 느끼는 대상이 의식의 태양이고, 지금 당장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마음의 태양입니다.

이렇게 3차원 세상에 있는 것들이 태양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LED등이 켜진 방에 갇혀 있다면 방 안은 보일지라도 방 바깥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에서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차원 세상에서는 의식과 마음에 날마다 돈돋이, 건강돋이, 자녀돋이 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LED등이 켜진 3차원 세상을 꺼버리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이른 새벽에 해변가에 나가면 발을 딛기 어두울 정도로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30~40분을 걷고 돌아올 때 해가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는 깜깜할 때 나가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3차원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내야 하나님 돋이를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소리는 망발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3차원 세상이 전부 어둠으로 밀려나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의식과 마음에서 세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에서 3차원의 세상이 통째로 어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돋이와 천국돋이가 보이게 됩니다. 동해의 빨간 태양처럼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있음과 천국의 좋음이 실제로 의식과 마음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느낄 때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묻혀있던 3차원의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빛과 천국의 빛 아래에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갖게 되자 돈 문제는 의식과 마음에서 어둠에 묻히게 됩니다. 돈이라는 태양의 해돋이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이 유지되는 동안에 하나

님돋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문제라는 상황에 하나님의 빛이 비취게 됩니다. 이제 돈 문제라는 상황이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마주 대하는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의식과 마음에서 해돋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차원 세상의 일들은 십자가에서 어둠으로 밀려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은 하나님돋이가 일어나는 명소가 됩니다. 하나님돋이가 일어나면 문제도 사건도 상황도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의 빛 아래에 놓이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제, 다른 사건, 다른 상황,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3차원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내면서 하나님돋이, 천국돋이를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돋이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 딴판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편 본문 39~40절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돋이를 볼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애초에 선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는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의식으로 있음을 느낀 대상 중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선민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의식으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좋은 분이시기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있음과 좋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오늘 제목과 연관 지어 말씀드리자면 의식과 마음에서 날마다 하나님돋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를 받은 선민들에게서 하나님돋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전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서 해돋이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세상 것들의 있음을 의식하고 마음에서 좋음을 느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완고함은 기존의 상태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만은 이방인들과 다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이 하나님돋이를 보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세상 것들을 빛과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식과 마음에서 1등을 하는 상태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완고함을 그대로 굳어지게 두시기로 합니다. 그렇기에 선민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바람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고 호감을 가질지라도 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42~43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표적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서 여전히 해처럼 떠오르고 있던 것은 산헤드린공회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산헤드린공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태양이 되어버립니다. 돈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봐야 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미루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서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듯이 돈 문제를 봅니다. 자녀관계가 돈이라는 태양빛 아래에서 이루어지니 돈이 없어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울까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돈 벌기를 강조합니다. 부부관계가 돈이라는 태양빛 아래에서 이루어지니 돈 이야기만 나오면 틀어집니다. 반대로 돈이 잘 벌린다고 하여도 이번에는 돈을 쓰느라 관계가 소

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날마다 세상 문제의 해돋이를 보고 있으니 돈 문제를 보고 자녀 문제만 보면서 그 빛 아래에서 한 해를 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선민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태양이 되셔야 함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르쳐주셨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표적으로부터 당장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날마다 건강, 돈, 자녀, 직장 등이 해돋이가 되어 떠오르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운해하시며 그 완고함을 내버려두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내용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호랑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과 마음에서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돋이, 천국돋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과 천국의 빛이 비치면 호랑이 같던 문제도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3차원의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냄으로써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돋이, 천국돋이를 언제 어디서나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새해에는 의식과 마음이 육체의 눈을 따라가지 않고 3차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수면 위로 빨간 해가 떠오르듯 세상은 어둠으로 밀려나고 하나님과 천국이 떠오르는 하나님돋이, 천국돋이의 날들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천국의 빛 아래에서 보이는 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상응하여 나타남으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